

10·24 ‘사회부(社會部)의 날’ 기념대회

2022년 10월 23일



‘불법즉사회(佛法即社會)’의 사명(使命)을 관철하며 광포(廣布)와 사회의 용자로 빛나는 사회부의 벗.(도쿄도다기념강당에서) @seikyoonline.com

10·24 ‘부(部)의 날’을 기념하는 사회부(社會部)의 대회가 지난 22일, 스가모(巢鴨)의 도쿄도다기념강당(東京戸田記念講堂)에서 열렸다.

나가노(長野) 사회본부장(社會本部長)의 인사에 이어, 쓰구치 아즈사 씨, 후쿠모리 마사키 씨, 타무라 유코 씨가 활동보고(活動報告)를. 덮치는 고난(苦難)에 불굴(不屈)의 신심(信心)으로 도전해 승리의 실증을 나타내는 모습을 소개했다.

테라다(寺田) 사회부장은 부(部) 결성 50주년인 내년을 향하여 각자의 무대에서 앵매도리(櫻梅桃李)의 승리극(勝利劇)을 엮어가자고 당부했다. 나가이시(永石) 여성부장은 사회의 분단(分斷)과 고립(孤立)이 심각화되는 지금이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과 신뢰와 우정을 맺는 격려의 대화에 솔선하고 싶다고 역설. 이케다(池田) 선생님의 만인존경(萬人尊敬)의 철학을 심간(心肝)에 물들여 창제(唱題)와 절복(折伏)을 통해 자신을 연마해가자고 말했다.

이케다(池田) 주임부회장은 “도리(道理)·증문(證文)보다도 현증(現證) 이상(以上)은 없느니라.”(어서신판1941·전집1468)을 배독하며 시련과 싸워 승리해내는 모습만큼 불법

자의 진가를 보여주는 일은 없다고 강조. 신심근본(信心根本)으로 눈앞의 한 사람, 하나의 일에 성실을 다하는 꾸준한 행동을 거듭하면서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안온(安穩)이라는 대원(大願)의 실현을 이뤄나가자고 호소했다.

〈사설(社說)〉

오늘은 ‘사회부(社會部)의 날’

2022년 10월 24일

주위를 비추는 ‘세웅(世雄)’의 사명

오늘 24일은 ‘사회부(社會部)의 날’. 동 부(部)는 1973년 10월 24일, 같은 회사나 직역의 멤버가 서로의 신앙을 연마하면서, 직장의 제일인자로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당시, 일본 경제는 제1차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위기에 빠져 있었다. 앞의 불안한 시대에 있어서 벗은 “사관(仕官)을 법화경(法華經)이라고 생각하시라, ‘일체세간(一切世間)의 치생산업(治生產業)은 모두 실상(實相)과 서로 위배(違背)하지 않음’이란 이것이니라.”(어서신판1719·전집1295)라는 어성훈(御聖訓)을 마음에 새기고 고난(苦難)의 역풍(逆風)에 맞선 것이다.

이래, ‘지금 있는 곳(場所)’ ‘내 직장’이 불법(佛法)의 지혜(智慧)와 힘을 발휘하는 본무대임을 자각하고 승리의 실증을 보여 온 것이 창가(創價)의 사회부의 영예로운 전통(傳統)이다.

IT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장년(壯年)은 업무 중압(重壓)과 과로(過勞)가 쌓여 휴직을 해야 했다.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릴 뻔했을 때, 이케다(池田) 선생님의 “어떤 슬픔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숙명(宿命)도 전부 유유히 타고 넘어 가장 행복한 경애(境涯)를 득(得)할 수 있는 것이 니치렌 대성인(日蓮大聖人)의 ‘불법(佛法)’이자 창가학회(創價學會)의 ‘신심(信心)’이다.”라는 지도(指導)를 만났다. “다시 한번, 사명(使命)의 장소로”라고 변독위약(變毒爲藥)의 신심(信心)을 관철하는 가운데, 홍교(弘教)의 결실을. 기원한 이상의 좋은 조건으로 복직을 이룰 수 있었다. 현재는 최첨단 기술 개발을 다루는 부서의 리더로서 분투하고 있다.

생활용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여성부 멤버는 신상품 개발 현장에서 고투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스승의 격려가 마음의 버팀목이 되었다. “자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불가능해진다.” “‘희망(希望)’은 ‘확신(確信)’으로까지 굳혀져야 만이 ‘현실(現實)’이 된다.” 용기를 분기시켜 매일 아침, 구체적인 기원에서부터 하루를 스타트.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직장 청소에도 힘썼다. 성실한 자세에 주위로부터의 신뢰도 퍼졌고 이윽고 자신이 기획한 아이템의 상품화를 실현. 순조롭게 매출을 올려 대히트 상품이 되었다.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불법(佛法)이라고 함은 승부(勝負)를 우선(優先)으로 하고, ... 그러므로 부처를 세웅(世雄)이라고 칭(稱)하며”(신판 1585 · 전집 1165)라고 말씀하셨다. 현실사회의 역경을 신심(信心)으로 승리해 넘은 ‘불법승부(佛法勝負)’의 체현자(體現者)야말로 사명 깊은 사회부(社會部)의 벗이다.

내년은, 사회부 결성 50주년. 주위를 희망의 빛으로 비추면서, 시대의 황파(荒波)에 도전하는 ‘창가(創價)의 세웅(世雄)’에게 진심으로 응원을 보내고 싶다.